

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

光日春秋



양무진
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

신년사에는 한 해의 정책 방향이 담기 게 된다. 그렇다면 2020년 북한의 신년 사에는 무슨 내용이 담길까?

“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도 3차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 에게 지난 연말까지 시한을 주었으나 미 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.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선제 조치를 자신의 과실로서만 활용했다. 부득불 새로운 길 로의 전환을 천명한다. 우리가 선의로서 취한 핵과 장거리미사일 시험 유예를 해 제하고 다시 활동을 재개할 것이다. 우 리는 단계적으로 조치를 확대해 나갈 것 이며 앞으로 정세가 어떻게 바뀔지는 전 적으로 미국에 달려 있다. 우리의 자유 적 국방력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. 그러 나 미국이 제정신을 차리고 적대시 정책 철회와 제재 해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 다면 우리의 조치들은 다시 철회될 것이 다.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

북한의 신년사 예상과 우리의 대응 전략

고 아무런 기간을 설정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갈 길을 갈 것이다. 우리는 미국 대통령의 재선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 며 미국의 어떤 대통령이 되어도 우리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.” 대미(對美) 부분에선 아마도 이런 내용이 담기 지 않을까.

그럼 대남(對南) 부분은 어찌 될까? “2019년 남한이 대미 굴종적 태도를 일 관함으로써 한반도 정세는 격화되었다. 금강산 및 개성공단 재개 등에 기회를 주 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진의 눈치나 보면 서 기회를 저버렸다. 남북공동선언 이행 이 미진한 것은 전적으로 남한의 책임이 다. 지난해 북미 관계 개선은 남한의 도 움으로 된 것이 아니다. 북미 정상 간 신뢰 에 따른 것이며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여 야로 남한 대통령은 더 이상 간섭하 지 말아야 한다. 남한과 대화·교류를 하 겠다는 의지는 분명하다. 그러나 남한이 계속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외세의 의존적 으로 나아가고 환경과 여건을 만들지 않 으면 더 이상의 대화나 교류는 없을 것이 다. 특히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할 경우 9 ·19 군사분야 합의서의 무효화와 함께 남북 관계는 파탄 날 것이다. 남한 보수 세력의 비난의 도가 찔을 수 있는 인내를 넘어가고 있다. 반북 분위기를 계속 조성 한다면 남북 관계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

려울 것이다. 우리는 남한 내 평화 세력 과 연대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.” 아마 이 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예상된다.

대외 부분에 있어서는 “중국, 쿠바, 러 시아 등 사회주의 나라들과의 단결을 계 속 강화해 나갈 것이며 제국주의 미국이 펼치는 압살 정책의 부당함을 계속 전파 해 나갈 것이다” 정도가 주요 내용으로 담길 듯하다. 2020년도 한반도 정세는 임중함을 예고한다. 임중함수록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원칙적 입장 전이 가 중요하다. 북한의 인위적인 긴장 고조 와 통미봉남, 총선을 앞둔 국내적 갈등에 도 불구하고 비핵화를 위한 마지막 시도 라는 생각으로 원칙에 흔들림 없이 버텨 나가야 한다. 긴 호흡을 가지는 것도 중 요하다. 경험적으로 남북 관계는 가다 서 다를 반복하면서 발전해 왔다. 정권 담당 자가 성과에 서두르게 되면 역효과가 발 생할 수도 있다.

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한 북핵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. 북한도 완전히 판을 깨려는 것은 아닐 것이다.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고 대화 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은 지속되어야 한다. 우리가 지속적 인 관여를 해야만 나중에 북미 대화 구 도가 정립되더라도 ‘코리아 패싱’ 현상 을 방지할 수 있다. 남북 관계 차원에서

어떤 비핵화 상응 조치를 담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미국과의 지속적인 협의 가 요구된다.

한반도 문제에 있어 남북 관계 특수성 에 따른 우리의 독자성 확보도 중요하다. 당장 내년 초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. 관광·인 프라 구축·사회문화·국제경기·대북지원 등 북한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업들에 대 한 인내심 있는 관여 노력이 요구된다. 반드시 9·19 군사 분야 합의는 지켜야 한 다. 이것이 무효화 되면 남북 관계의 보 루가 무너지는 것이다. 접경지역의 긴장 관계에 적절히 대응하고 불필요하게 정 점화하거나 약제로 작용되지 않도록 상 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.

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한 사업은 지속 추진되어야 한다. 중국·러 시아·일본 등과의 1.5 트랙 수준에서 협 력해 나갈 수 있는 분야 개발이 시급하 다.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중국의 참여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. 한중 정상상호방문 등 정상 차원에서 한중 공조를 해 나가는 동시에 ‘미국이나 중국이냐라는 진영 구도도 가지 않도록 균형 외교를 펼쳐야 한다. 위기와 기회는 모두 사람이 만든다. 우리가 노력하고 지 혜를 모은다면 위기 극복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.

종교칼럼



황성호
영암 신복성당 주임신부

시간을 지배하는가? 아니면 시간의 지배를 받는가?

나의 하루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살아 가는지 한번 살펴보자. 전날 저녁 다음 날 일정을 위해 알람을 아침 6시 30분에 맞추고 잠자리에 든다. 다음날 아침 알람 소리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한다. 오전 미 사가 있는 날은 정해진 미사 시간을 위해 모든 것을 집중한다. 미사 전까지 아침 기도를 바치고 강론을 준비한다. 미사 시 각 30분 전에 성당에서 조용히 묵상한 다. 그리고 미사는 약속된 9시 30분에 시 작한다. 미사가 10시에 끝나면, 곧바로 신자들과 함께 성경 통독과 여러 활동들 을 한다. 그리고 잠시 후, 점심 식사 시간 이 다가온다. 습관적으로 12시에 꼭 식

시간을 지배하는가?

사를 한다. 점심 식사 후, 오후 일과도 시 간에 따라 척척 움직인다.

야간 대학원에 다니기에 저녁 7시에 시작하는 수업에 맞추려고 6시 10분 전 에 집을 나선다. 수업이 끝나고 신복 성 당에 9시 30분에서 10시 사이에 도착한 다. 저녁 식사를 놓쳤기에 간단하게 요기 를 한다. 미진한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나면 밤 11시가 가까워지는데, 이때 끝 기도를 바친 후 잠자리에 든다.

나의 하루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 면서, 참 분주하다는 생각이 든다. 그런 데 나의 일과를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이 든다. 내가 결정한 것에 따라 내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시간에 따 라서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지 의문을 던 재본다.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은 ‘나’ 인 데, 시간이 나의 삶을 통제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이기 때문이다. 내 삶을 위해 시 간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시간을 위해 내 삶이 움직이는 것인지 의문을 던져보 기도 한다.

사람마다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매 우 다르다. ‘시간이 빠르게 지나간다’라 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, ‘시간이

매우 느리다’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기 때 문이다.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시간에 대 해서 이렇게 말했다. “아름다운 여자와 는 두 시간 동안 같이 앉아 있어도 2분처 럼 느껴지고, 뜨거운 화덕 위에는 2분만 앉아 있어도 두 시간이 지난 것처럼 느껴 진다. 이것이 상대성이다.” 자신이 좋아 하는 것은 시간 가는 줄을 모르지만, 싫 어하는 것에는 시간이 더디게 흐르는 것 은 왜일까?

우리는 모두가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 워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. 이때의 시간은 정말 쏠살같이 지나가 버리는 것 같다. 그러나 힘들고 고��스럽고 불행했던 경 험을 더듬어 보면 너무나 느리게 흐르는 것을 체험했을 것이다. 젊은이들은 시 간이 더디게 간다고 말하지만, 어른들은 시간이 화살처럼 지나간다고 말씀하신 다. 같은 시간을 두고도 이렇게 다르게 느끼는 것이다.

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똑 같다. 그렇다면 똑같은 시간인데, 다르 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? 받아들이 는 마음, 주어져 있는 환경 그리고 반복 되었던 삶의 습성 때문이 아닐까? 시계

에 나타난 정확한 시간과 심리적으로 느 끼는 시간은 다르다고 한다. 또한 더운 나라와 추운 나라의 사람들이 느끼는 시 간의 흐름도 다르다고 한다. 연령대에 따 라서도 시간을 대하고 느끼는 것은 서로 다르다. 시간에 대해 각자가 느끼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. 그러나 시간에 대해 분명한 것은 모두들 게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이다.

이제 2019년도 10여 일 남아 있다.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인데, 우리 모두에 게 똑같이 1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 기 이다. 누군가에게는 이 10일이 짧을 것이 고, 또 어느 누군가에게는 길게 느껴질 것 이다. 빠르게 흐르는 시간을 경험할 것인 지 아니면 느리게 흐르는 시간을 경험할 것인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. 또한 시간을 지배할 것인지 아니면 시간에 지 배당할 것인지도 자신에게 달려 있다. 예 수는 ‘사람의 아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다’ (누가 6.5)라고 시간과 규정을 초월한 말 씀을 하셨다. 그렇다면 우리 각자에게 주 어진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? “시간을 지배할 것인가? 아니면 시간에 지배를 받 을 것인가?”는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.

기 고



이재인
광주시 서구청 안전환경국장

명명한 가을 하늘은 잠시, 때서운 한파 와 함께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 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‘삼한사미’의 계절이 되 었다. 돌이켜 보니 올 여름에는 폭염과 전장을 치렀고, 찜통 같은 무더위가 물러 나가는 싶더니 대어섯 개의 태풍까지 한 반도를 긴장시켰다. 물 폭탄 같은 폭우는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앗아갔고, 산사태 에 도로마저 끊겼다. 이렇게 일상화된 기 상 이변과 재난 재해는 비단 우리나라의 일만은 아니다.

전문가들은 북극의 빙하가 2030년이 면 운명을 다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 이렇게 녹는 빙하는 해수면을 높이고, 가 물과 폭우, 혹한 등 기후 변화의 주된 원 인이 되고 있다. 한 여름에도 평균 기온

환경 보존의 열쇠, 우리 손안에 있다

이 25도가 넘지 않아 에어컨이 필요 없 던 스웨덴도 이제는 최고 기온이 35도가 지 치른다. 미국과 호주는 폭염으로 인 한 대형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고, 일본 과 동남아 지역은 태풍과 폭우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.

이 모든 게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 들이다. 기후 변화는 지구 온난화에 기인 한다. 지구 온난화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을 말하는데 공기 중에 늘 어나는 온실가스가 마치 우리 온실처럼 작용해서, 지구 표면의 온도를 높이는 현 상을 말한다. 이로 인해 지표와 대기의 평균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지구 가 더욱 더 더워지는 것이다.

지구 온난화는 해수면의 높이를 상승 시키고, 그로 인해 해안가 저지대들이 침 수되며, 집중 호우나 가뭄과 같은 기상 이변으로 자연재해도 빈번해 진다. 기후 변화는 이산화탄소, 메탄, 아산화질소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주요 원인 이다. 뒤집어 생각하면 온실가스를 줄이 는 것만이 지구 온난화를 지연시키고 기 상 이변을 최소화시키는 근본 해법인 것 이다. 이에 따라 우리 구도 ‘숨 쉬는 친환

경 안전도시’를 목표로 저탄소 생활 실천 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력 중이 다.

폐우산을 재활용하여 선풍기 커버나 앞치마, 크로스백 등 생활용품을 제작하 고, 자전거 이용 생활화, 저녹스(NOx) 보일러 지원, 아이스팩 재활용, 도랑 살 리기 등 다양한 생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. 공동 주택 쓰레기 총 배출량의 65%를 차지하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도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 다.

관내 116개 공동 주택에 무선 인식 (RFID)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설을 설치하고, 잔반 제로화 운동, 음식물 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등 주민 참여를 바탕 으로 하는 시책도 병행중이다. 도심내 녹지 공간 확충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 지 않고 있다.

도시 녹색 커튼 사업을 비롯해 학교 유 휴 공간에 명상 숲 조성, 건물 옥상 녹 화, 도랑 살리기, 녹조 저감 사업, 수 (水) 생태계 복원 사업에 힘을 쏟고 있 다.

금년에는 상무시민공원에 ‘네프론’이

라고 하는 인공 지능 재활용 자판기도 설 치했다. 캔과 페트병을 자동 수거하는 설 비로 1개당 5원의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급됨에 따라 주민들의 이용 률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.

실내등을 매일 한 시간씩 소등하면 연 간 1.9kg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할 수 있 다고 한다. 종이 타월을 하루 열 장 씩만 덜 쓰고, 대신 손수건을 사용하면 연간 6 kg의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고, 일회용 종 이컵 대신 개인 컵을 사용하면 연간 2.8 kg의 이산화탄소가 감소된다. 이뿐만이 아니다.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 하면 13.6kg의 이산화탄소가 줄어든다. 1주일에 한 번 자가용 대신 도보나 자전 거를 이용하면 연간 27.5kg의 이산화탄 소를 감소시킬 수 있다.

저탄소 친환경 생활이 선택이 아닌 필 수가 되어야 할 이유다. 전기, 가스, 물과 같은 자원을 아껴 쓰고, 쓰레기를 줄이 며, 개인 컵을 사용하는 등 우리의 작은 실천이 환경을 지키는 열쇠다. 그 키는 바로 우리 손 안에 있다. 병들어 가는 지 구를 살리는 열쇠 말이다.

社 說

목포~부산 ‘두 시간 열차 시대’ 열린다

경전선(慶全線) 광주~순천 구간 전철 화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 과했다. 기획재정부는 어제 ‘광주~순천 구간 전철화사업’ 예비 타당성 조사 종합 평가에서 ‘사업 계획 적정성’ 평가를 내 렸다. 이로써 경전선 122km 구간의 선형 을 개량하고 전철화하는 사업이 본격적 으로 추진된다. 내년에 착공해 2017년 완공할 계획인데, 총사업비 1조7569억 원이 투입된다.

광주~순천 구간은 경전선의 유일한 단 선 비전철 구간으로 1930년 건설 이후 한 번도 개량되지 않았다. 현재 목포에서 광 주 승정역을 경유해 부산 부전역까지 무 궁화호가 하루 한 차례 운행하는데, 여섯 시간33분이 걸린다. 워낙 느려 ‘눈물의 경전선’으로 불리지만 지금까지 전철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. 2011년에 는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돼 2014 년 1월 여타에 착수했지만 통과되지 않았 다. 오죽하면 지난 4월 김영록 전남지사

가 목포에서 열차를 직접 타고 부산까지 가는 느림보 열차를 체험하는 퍼포먼스 를 했을까.

광주~순천 구간이 전철화 되면 현재 시 속 48.7km가 최고 시속 250km로 빨라진 다. 목포에서 부산까지는 네 시간 9분, 광 주에서 부산까지는 세 시간 18분이 단축 돼, 두 코스 모두 두 시간 24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된다. 목포~부산까지 ‘두 시간 열 차 시대’가 열린면 영호남 물류 교류 확대 는 물론 신남부 경제권 기반 구축과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발전의 계기가 될 것 이다. 남해안 선벨트로 불리는 남해안권 발전 종합 계획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.

따라서 이제부터는 사업이 제대로 진 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. 여타 는 통과됐지만 예산 집행이 제때 안 돼 사 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는 것 을 명심하고 정부는 물론 지역 정치권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 야 할 것이다.

‘블랙아이스 사고’ 지자체 책임도 크다

지난 주말 경북 영천에서 발생한 ‘블랙 아이스’로 인한 연쇄 추돌사고의 충격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광주에서도 빙몰이 나 빙판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 교통 약자들을 위

한 점자 블록이나 일부 도로경계석이 눈 비만 오면 블랙아이스로 돌변해 시민들 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.

광주 도심 곳곳에 설치된 도로경계석 은 대부분 화강석 재질인데, 화강석 재 질은 내구성이 뛰어난 반면 미끄럼 사 고 에 취약해 겨울철 교통사고의 한 원인이 로 꼽힌다. 눈비가 내리는 날이면 도로 위 블랙아이스처럼 경계석 위로 얼음이 형성돼 육안으로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 이다.

실제로 최근 광주시 북구에 사는 김민 호(9) 군은 등굣길에 도로경계석 때문에 미끄러지면서 얼굴을 크게 다쳤다. 새벽 에 도로경계석 위로 내린 이슬이 낮은 기 온 탓에 얼어붙으면서 빙판길이 된 것이 다. 또 광주시 남구에 사는 박병석

(32) 씨는 엇그제 택사에서 내리던 중 빗 물에 젖은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에 미끄 러지면서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.

문제는 매년 겨울철이든 블랙아이스 로 인한 교통사고가 반복되고 있지만 광주 지역 5개 자치구는 관련 조레가 없 다는 이유로 뒷집만 지고 있다는 것이 다. 서울시가 도로경계석의 미끄러운 면을 사포면처럼 거칠게 표면 처리하는 등 미끄럼 방지 시공을 하는 것과는 대 조적이다.

따라서 겨울철 블랙아이스로 인한 교 통사고의 책임을 운전자들의 부주의로만 돌릴 수는 없다. 한국 도로교통공단이 지 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교통사고 연 속적인 결과, 고속도로 결빙 등으로 인한 사고가 3863건에 달한 게 이를 방증한 다. 따라서 각 지자체는 운전자에게 실시 간으로 도로 상황을 알려 주는 대응 체계 를 구축하는 한편 사고가 빈번한 구간에 는 노면에 열선을 깔아 블랙아이스 사 고 를 막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.

無 等 鼓

바다에서 상어와 직접 부딪히거나 상 어에게 해를 입은 사람은 극히 소수일 것 이다. 그럼에도 상어 하면 대부분 바다의 포식자나 식인 괴물을 떠올리게 된다. 상 어에 대한 이러한 선입견은 아마도 1975 년 개봉한 ‘조스’라는 영화에서 식인 백 상아리의 포악성이 두드러지게 부각됐 고, 이후 비슷한 영화들이 인기를 끈 것 이 그로 작용했을 것이다.

해양소설 작가로 영화 조스의 원작 소 설을 쓴 ‘피터 벤츨리’는 나중에 상어 공격적인 것은 3종에 불 과하며 다른 맹수에 비

방에는 ‘삭스핀이 없으면 잔치라고 할 수 없다’는 말이 있을 정도이다. 삭스핀 요 리는 중국 명나라 함대가 아프리카까지 긴 항해를 하던 중 식량이 떨어진 상황하 서, 원주민들이 먹다 버린 상어 지느러미 를 끓여 먹은 것이 시작이었다고 한다.

중국인들은 삭스핀 요리를 부와 명예 의 잣대로 여긴다. 그래서 부자의 경우에 는 결혼식에 상어 수심 마리의 지느러미 를 쓰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. 값도 비 싼 편이다. 상어 고기는 1kg당 1달러지 만 지느러미는 100달러 나 된다. 이때문에 많은 어선들이 지느러미만 잘 러낸 뒤, 상어는 바다에 버리기도 한다. 고급 음식으로 부를 과시 하려는 인간의 욕심과 허영 탓에 상어는 결국 멸종 위기에 몰렸다.

12·12 군사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과 신 군부 세력들이 지난 12월 12일 한자리에 모여 삭스핀을 포함한 오찬을 즐겼다고 한다. 권력욕에 사로잡혀 국민을 학살한 세력들이 허필 인간의 욕심에 희생된 상 어의 지느러미 요리를 즐겼다고 하니 더 욱 가증스럽다.

/채희호 사회부장 chae@kwangju.co.kr

光 州 日 報		The Kwangju Ilbo	
시장·발행·편집·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			
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 1(윤간)		우1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	
대표전화 222-8111 / 220-0551(지사 지국(구독 신청 배달 안내)) 광고문의 062-227-9600			
편집국내 편 집 부 220-0649 정 치 부 220-0632 경 제 부 220-0663 사 회 부 220-0652 전 남 본 부 220-0642	〈대표 FAX 222-4918〉 문 화 부 220-0661 예 향 부 220-0692 사 진 부 220-0694 체 육 부 220-0621	경 영 지 원 국 220-0515 (FAX 222-8005) 기 획 관 리 국 227-9600 (FAX 222-0195) 디 자 인 실 220-0536 서 울 지 사 02-773-9331 (FAX 02-773-9335)	문화사업국 220-0541 (FAX 222-0195) 무 국 220-0551 (FAX 222-0195) 서울지사 02-773-9331 (FAX 02-773-9335)
※구독료 월정 10,000원 1부 500원			
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			